

##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1</sup>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sup>2</sup>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3</sup>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4</sup>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5</sup>

이유진<sup>1</sup> · 노성원<sup>2</sup> · 김성완<sup>3</sup> · 안동현<sup>4</sup> · 정한용<sup>5</sup>

###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in University Hospitals

Yu Jin Lee, MD, PhD<sup>1</sup>, Sungwon Roh, MD, PhD<sup>2</sup>, Sung-Wan Kim, MD, PhD<sup>3</sup>,  
Dong Hyun Ahn, MD, PhD<sup>4</sup>, and Han Yong Jung, MD, PhD<sup>5</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up>2</sup>Department of Mental Health Research,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Korea

<sup>3</sup>Department of Psychia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wangju, Korea

<sup>4</sup>Department of 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up>5</sup>Department of 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ceived February 23, 2014  
Revised February 28, 2014  
Accepted March 6, 2014

#### Address for correspondence

Yu Jin Le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1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2072-2456  
Fax +82-2-744-7241  
E-mail ewpsyche@snu.ac.kr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plans for improvement of psychiatric departments in university hospitals of Korea. We examined the operation situation in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in university hospitals of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consultation conferences with experts were conducted.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in university hospitals, policy development, expansion of psychiatric fields,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research, and support from government may be necessa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87-91

**KEY WORDS** Department of psychiatry · University hospital · Improvement plan.

## 서 론

대학병원은 교육 병원의 역할을 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체계상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속되어 있는 병원이다. 대학병원의 기능은 진료, 교육, 연구의 3가지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 기능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 병원으로서 의료인을 양성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의 수련 및 교육을 담당한다. 새로운 치료 기술을 포함한 의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추가적으로, 대학병원은 지역사회 내의 대표적인 공공 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 역할이 작거나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병원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대형화됨에 따라 운영에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고, 1990년대

이후 첨단 의료장비와 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고급진료를 표방하고 나선 대형 기업병원들로 인해 기존의 대학병원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면서 이런 변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sup>1,2)</sup>

대학병원이 가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예측성과 의료기관으로서의 독립성에 기초한 이윤성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립대병원뿐 아니라 국립대 대학병원도 독립체산제 형식의 특수법인으로 바뀐 이후 진료 사업을 통한 수익 산출이 병원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진료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의 기능의 위축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sup>3)</sup>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타과에 비해 저수가 상황에 놓여 있어 병원 내 타과에 비해 진료 수익이 적어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지정의 지정 및 평가규정<sup>4)</sup>,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항목<sup>5)</sup>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및 역할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및 규정에 민감한 병원 내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입지는 향후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장래 의사가 될 의과 대학생들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와 교육의 기초이자, 고난이도 진료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치료의 보루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의 기반이 되는 근거 창출과 신의료기술 개발 등 정신질환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영역 및 역할에 대해 리뷰해보고, 전문가 회의를 시행하여 향후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방 법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역할과 구조를 조사하였다. 호주의 경우 현지에서 연수 중인 연구자가 현지 대학병원 의료진의 인터뷰 및 관련 문헌 고찰 후 정리하였고, 일본의 경우 자체 제작한 질문지를 동경대를 포함한 3개 대학병원에 발송하였으나, 답변에 응한 Teikyo 대학병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활용하였다.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annual report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규모와 구조, 그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대학병원장을 역임하신 신경정신의학회 회원 및 현 정신병원장, 신경정신의학회 정책 연구소 소장 및 실행 위원들로 구성되어 2차례 진행되었다. 현재 대학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와 현실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결 과

### 해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호 주

호주 대학병원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구를 기반으로 정신의학 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은 민간 병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선도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에 조언과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의 탈원화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대학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호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운영에 참여하는 시설과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대학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정신과 전문병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진료 및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뇌신경, 유전, 정신보건정책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운영하는 등 생물-심

리-사회적 분야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호주 대학병원에서 시행되는 연구의 특징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임상 진료와 정신보건 서비스가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동물실험이나 유전연구처럼 실험실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적 연구도 활발하지만 심리사회적 치료,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및 정신보건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분야에 대한 연구의 우선순위가 높다.<sup>6)</sup> 심리사회적 분야 연구에 대해 정신보건 종사자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생물학 중심의 연구가 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임상서비스와 밀접한 연구는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구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증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정책이 개발되고 정부의 투자를 받아 확장된다.<sup>7)</sup>

Orygen youth health의 ‘조기 정신증 예방 및 중재 센터’(Early Psycho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entre, 이하 EPPIC)를 예로 들어 호주 대학병원의 역할을 살펴보자. EPPIC는 1988년에 멜버른 대학의 여러 부속 병원 중 한 곳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초발 정신증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정신의학 치료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면서 1992년부터 독자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EPPIC 서비스는 크게 3분야로 나뉘는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연구 센터를 통한 더 나은 정신보건 서비스 개발, 그리고 대중 및 정신보건 전문가 대상의 훈련과 교육이다.<sup>8)</sup> 2006년부터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정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기 시작한 ‘Headspace’ 서비스에 관여하였다.<sup>9)</sup> 조현병의 전구기를 새롭게 정의한 초고위험군(ultra high risk)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조기중재의 중요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신보건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를 주장해 왔다.<sup>10)</sup> 그 결과 2011년에 호주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억 5천만 달러(약 4000억원)를 지원하여 EPPIC 모형에 기반한 센터 16개와 90개의 headspace 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22억 달러(약 2조) 규모에 해당하는 국가 정신보건 개혁 방안(headspace 센터 확장, 무료 온라인 상담, 다양한 청소년 정신보건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신보건 영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 집행에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임을 설득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1)</sup>

**일 본**

Teikyo 대학은 일본 동경 이타바시구 가가에 위치한 일본의 사립대학이다. 1971년 의학부 및 대학병원이 설립되었다. Teikyo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faculty member는 8명, 전임의 1명, 전공의 2명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일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규모와 비슷하였다. 임상적으로는 분과의 구분이 없었으며 47개의 개방병상을 운영 중이다. 각 소속 faculty는 주 11 session의 외래를 열어 주중의 외래는 계속 열려있는 형태이다.

8개의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되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시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의과대학생, 저년차 전공의, 고년차 전공의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Faculty 1인당 연간 1.75개의 논문 실적이 있고 연구비 규모는 총 2억6천여만 원의 규모이다. 각 faculty의 업무비중에 대한 질문에 임상 진료가 50%, 연구가 20%, 교육 10%, 지역사회정신의학 10%, 기타 10%라고 응답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반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는 임상 진료, 교육, 연구, 지역사회 순이었다.

**미국 및 캐나다**

토론토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큰 규모로 700명 이상의 active faculty member, 연차별 전공의 30여 명, 4개의 지역사회 연계기관을 포함하여 17개의 소속병원 및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2)</sup> 임상적으로는 8개의 divi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은 학생 교육, 전공의 교육, 대중강의나 타과 의사 대상교육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교육, 전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의 교육은 mentorship 프로그램과 clinician scientist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교육 프로그램 당 1인의 director가 있어, education council에서 전반적인 결정사항을 결정한다.

Faculty member의 30%가 연구전담 faculty로, 연구비 규모는 2012년 기준 7천9백만 달러, 논문 수는 연 770편이다.

매 5년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향하는 우선순위를 정해 홍보하고 공유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2012~2017년 기간의 경우 교육, 타 직종과의 협력, 생애 초기 발달에 대한 이해, 뇌과학 연구,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주립대학 정신건강의학과는 250명의 faculty member와 120명의 전공의, 4개의 소속병원 및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3)</sup> 임상적으로는 6개의 division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중독, 자폐,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학생교육, 전공의 교육, 심리사 교육, 전임의 교육, 지역사회 교육, 평생의학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비 규모는 연 3천6백만 달러 수준으로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우울증 치료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에 강점이 있다.

**전문가 회의 결과**

2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필요함.
- 2) 병원평가 관련 항목에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3)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원가의 구조적인 문제 및 저수가 문제 개선
- 4) 정신질환의 중증도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  
정신 질환의 중증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한 중증도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함.  
현 전문, 일반, 단순 진료군 분류의 재분류가 필요함.
- 5) 정신건강의학과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수련 과정 정비
- 6) 다양한 진료 영역의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영역의 확대
- 7) 대학병원-정신병원-개원가 역할 정립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발전을 위한 연계강화

**고 찰**

본 연구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의료 체계 및 규모의 차이, 지역별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호주의 경우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공공의료와 국가 정책에 대한 근거 창출, 정부와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이 특징적이었다. 호주의 예를 통해 살펴본 대학병원의 역할은 정신보건 소비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를 연결하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더 효과적인 서비스와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병원 구성원의 지역사회 및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감과 다양한 직종 및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학병원이 연구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일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비슷한 현실이어서 임상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풍부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다른 특징이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고, 의료 체계의 차이로 현실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토론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British Columbia University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캐나다의 경우 매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과 향후 신경정신의학회의 대응 방향이 강조되었다. 우선적으로, 현재 대학병원이 당면한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의 현실이 반영된 복잡한 문제임을 공감하였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수가의 현실화와 정신과 질환의 증증도 증가를 위한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영역의 확대, 수련과정의 재 정비, 대학병원-정신병원-개원가와의 역할 정립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발전을 위한 networking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발전을 위하여 저자들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거를 창출하며, 개발된 정책을 도입하는 노력들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정책에는 개원가, 정신병원, 대학병원 간의 연계 강화 및 역할 정립과 같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정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하겠다.

둘째, 대학병원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대학병원 뿐 아니라 1차, 2차 의료기관을 포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체의 저변확대를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 연구 기능을 대학병원에서 수행하고는 있지만, 진료 수익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수가가 낮아 고수익을 남기지 못하면서,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위치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이 크다.<sup>14)</sup>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는 물론이고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공공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인 경쟁력

향상에도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기술했듯이 해외의 대학병원은 정부의 투자를 받아 정책의 근거 창출, 교육,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정신보건 관련 인력과 대중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의학 연구와 정책 개발의 공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결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의 대학병원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발전을 위해 정책 개발, 진료 영역의 확대, 교육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중심 단어 :** 정신건강의학과 · 대학병원 · 발전방안.

##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시형 사회정신의학 연구기금 연구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1) Lee KS, Lee HJ, Cho KS, Seol DJ. The satisfaction analysis for patient care service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J Korea Soc Hosp Adm 1998;3:165-191.
- 2) Cho KS, Lee HJ, Lee KS, Kim CB, Seol DJ, Choo SC. Evaluation of patient care, education, and research as indicators of university hospital performance. J Korea Soc Hosp Adm 2001;6:25-45.
- 3) Moon OR, Gam S, Kwon SM, Lee SI, Yoon TH, Kim CY. Study on remodeling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unc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2004.
- 4) Regulations for the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upper grade general hospital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1.
- 5) Standards for the certific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0.
- 6) Griffiths KM, Jorm AF, Christensen H, Medway J, Dear KB. Research priorities in mental health, Part 2: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research effort against stakeholders' priorities. Aust N Z J Psychiatry 2002;36:327-339.
- 7) Tobin M, Hickie I. Outcomes focused service delivery: developing an academic-management partnership. Aust N Z J Psychiatry 1998; 32:327-336.
- 8) Oyh.org.au [homepage on the Internet]. Melbourne: Orygen YOUTH Health. Our Story. [cited 2013 Sep 7]. Available from <http://oyh.org.au/about-us/our-story>.
- 9) Rickwood DJ, Telford NR, Parker AG, Tanti CJ, McGorry PD.

- Headspace - Australia's innovation in youth mental health: who are the clients and why are they presenting? *Med J Aust* 2014;200:108-111.
- 10) McGorry PD. The centre for young people's mental health: blending epidemiology and developmental psychiatry. *Australas Psychiatry* 1996;4:243-247.
  - 11) Major expansion for headspace as EPPIC moves forward [cited 2013 May 23]. <http://www.health.gov.au/internet/ministers/publishing.nsf/Content/mr-yr13-mb-mb038.htm>
  - 12) University of Toronto Psychiatry Annual Report;2011-2012.
  - 13) Uwpsychiatry.org [homepage on the Internet].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cited 2013 Aug 7]. Available from <http://www.uwpsychiatry.org/>.
  - 14) Cho WH.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university hospital. *Korean Hosp Assoc* 2001;30:10-16.